

지긋지긋 부상 털고... 백용환이 돌아왔다



진갑용(왼쪽) 배터리 코치와 백용환.

2016년 십자인대 파열
복귀↔재활 오가며 철치부심 3년
올 스프링캠프 순조롭게 소화
안정적 수비·물오른 타격감 호평
진갑용 코치 “진가 확인” 기대감
백용환 “안타 치고 도루 잡고...
성적으로 투수 마음 훑어줬다”

이후에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최근 3년간 백용환은 77경기 출전에 그쳤다. 올 시즌 준비는 순조롭다. 부상 없이 착실하게 캠프를 소화하면서 자신의 장점인 타격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다. KIA에 새로 합류한 진갑용 배터리 코치도 ‘건강한 백용환’의 진가를 확인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백용환은 “최대한 준비한 것을 시합할 때 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감독님께서 수비를 강조해서 수비에 최대한 실수를 적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진갑용 코치님이 캐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했다”고 수비를 우선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수비를 우선 생각하는 지도자다. 진갑용 코치도 포수의 안정감을 최우선 가치로 언급한다. 이에 맞춰 백용환은 준비 동작에서부터 변화를 주면서 수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백용환은 “준비 동작에서 미트를 내리고 기다렸는데 그걸 줄여보자고 하셔서 연습 많이 했고, 적응했다”며 “미트에서 최대한 불을 빨리 빼내

견제의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은 수비. 안방싸움에서 이기려면 다른 팀을 보여줘야 한다. 그 부분이 바로 백용환의 타격이다. 백용환은 타격을 위해 ‘부상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 백용환은 “안타 치고 도루 잡고 성적으로 보여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한다”면서도 “타격보다 안 아프고 많이 게임에 나가는 게 목표다. 안 아파야 (경기) 많이 나가고, 많이 나가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게 먼저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계속 무릎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다. 트레이너 코치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니까 안 아플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상없이 엔트리 경쟁의 승자를 노리는 백용환은 투수들이 먼저 찾는 포수를 꿈꾼다. 백용환은 “코치님도 감독님도 처음 해보니까 캠프부터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잘 됐다. 잘 준비해왔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최근에는 아파서 투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보지 못했다. 투수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포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구자철 ‘존재감’

아우크스부르크 역대 베스트 11에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을 맡았던 미드필더 구자철(31살 가라파)이 팬들이 선정한 아우크스부르크 역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구단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팬들이 뽑은 역대 베스트 11의 명단을 발표했다. 구자철은 4-3-3 포메이션으로 선정한 베스트 11의 중앙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볼프스부르크를 통해 분데스리가 무대를 처음 밟은 구자철은 2012년 2월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됐다. 마인츠를 거쳐 2015년 8월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해 맹활약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6시즌을 뛰는 동안 총 155경기에 출전해 23골을 터트린 구자철은 지난해 8월 카타르 스타스리그 알 가라파로 이적했다. /연합뉴스

“6부리그 승강제 진행”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사업 선정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스포츠클럽 승강제(디비전) 리그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밝혔다. 협회는 “등록된 실업, 대학, 클럽, 동호인 팀을 대상으로 총 6부리그로 승강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1부는 실업 및 대학교, 2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전문 체육클럽팀, 3-6부는 동호인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야구팀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현재 승강제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은 약 690개, 선수는 약 1만7250명”이라며 “올해는 시·군·구리구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팀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각 체육 단체에 승강제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았다. 승강제를 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공모를 통해 탁구, 당구와 함께 지원 단체로 선정됐다. 협회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승강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 시점에 맞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 관계자들에게 승강제 진행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훈련 파트너는 애완전”

메이저리거들 각양각색 개인 훈련

볼빨이 흩어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다. 워싱턴 내셔널스의 구원 투수 선 두리틀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10일(한국시간) 자택 마당에서 애완견을 들고 스쿼트 훈련을 하는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두리틀은 진지한 표정으로 애완견과 스트레칭했다. 그는 “오늘은 (애완견) 소피아가 훈련을 도왔다”며 깨알 같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돼지를 이용해 훈련하는 선수도 있다. 마이애미 말린스 산하 마이너리거인 닉 레디는 죽은 멧돼지 한 마리를 등에 둘러업은 채 스쿼트 훈련을 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했다. 가족이 훈련 도우미로 나서서 선수들도 많다.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 게릿 폴은 자택 뒷마당에서 아내인 에이미 폴과 훈련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소프트볼 선수 출신인 에이미 폴은 프로선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캐치볼을 해 화제를 모았다. 놀라운 사실은 에이미 폴이 6월 출산을 앞둔 임신부라는 점이다. 에이미 폴은 만삭인 채로 남편의 글러브에 슬라이더를 정확하게 던지기도 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강타자 프래더 프리먼은 뒷마당에서 3살 난 아들 찰리가 던진 공을 등장 밖으로 넘겨 웃음을 자아냈다. 해당 영상은 270만명 이상이 봤다. /연합뉴스

양현종 “글러브 벗고 머리 싸움” 임기영

KIA, 오늘 흥백전 9차전 백팀·홍팀 사령탑 대결 이벤트

KIA타이거즈 양현종과 임기영의 ‘사령탑 대결’이 13일 펼쳐진다. KIA는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흥백전 9차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에서는 흥미로운 사령탑 대결이 펼쳐진다. 윌리엄스 감독이 벤치에서 물러나 관람자가 된다. 대신 양현종과 임기영에게 각각 백팀과 홍팀의 지휘봉을 맡겼다. 앞서 흥백전을 지휘했던 윌리엄스 감독과 박흥식 퓨처스 감독, 워터마이어 수석코치는 일체 플레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배경수 1군 매니저와 이우중 퓨처스 매니저가 각각 백팀과 홍팀의 수석코치로 나서 두 일일 감독을 보좌한다. 윌리엄스 감독이 제안한 ‘이벤트 매치’다. 윌리엄스 감독이 “오랜 훈련에 지친 선수단의 분위기를 환기 차원으로 이벤트 경기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아이디어를 냈고, 경기는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연기되면서 13일 열리게 됐다. 두 일일 감독은 선수단 구성도 마쳤다. 양현종과 임기영은 지난 10일 선수단 전체 미팅에서 드



13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 이벤트 매치의 일일 감독을 맡은 양현종과 임기영이 지난 10일 드래프트(선수 선발)를 마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래프트를 갖고, 필승 라인업을 위한 선수단 구성을 끝냈다. 투수진은 전력 안배와 투수구 조절의 이유로 코칭스태프가 사전에 구성해 놓은 2개조 가운데 한 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꾸렸다.

이에 따라 양현종은 흥상삼을 선발로 내세워 승리를 노리고, 임기영은 가승을 앞세워 맞불을 놓는다. 서재용 투수 코치는 ‘이벤트 매치’ 중계를 맡는다.

서 코치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타이거즈 TV’를 통해 방송되는 경기의 해설을 담당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객원 해설로 등장해 이벤트 매치 기획 의도와 올 시즌 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